

요한복음 28번째 말씀

## 열두 광주리와 물위로 걸으심

요한복음 6:16-21

배고픔과 바람이 어떤 점에서 유사점이 있을까? 양쪽 다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면 생명의 위험을 당하게 된다. 광야에서 음식을 구할 길이 없을 때를 상상해 보라. 그러면 당신은 죽게 될 것이다. 당신이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 가운데 있는 보트 안에 있고 폭풍이 불어 닥친다고 상상해 보라. 그러면 역시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광야에서 우리가 굶주림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을 때, 빵이 되신 주님이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폭풍우 가운데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안에 갇혀 있을 때 물위로 걸으신 주님이 우리가 탄 배 안에 들어오신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자기를 역지로 임금 삼으려 하는 사람들로 부터 떠나셨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찾아왔을 때 긴 이야기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들은 물위로 걸으신 예수님의 기적에 대하여 모른다. 예수님은 그 기적에 대하여 말씀 하시지 않았고, 제자들도 말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기적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것은 제자들을 위한 것이요, 우리 들을 위한 것이다. 우리는 이 시간 5000명을 먹이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가득채운 사건과 물위로 걸어가신 예수님의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 I. 12 바구니에 가득 채운 빵

요한복음 6장 12절, 13절에서 예수님의 명령과 제자들이 순종한 내용을 생각해 보자.

12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13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12 바구니에 남은 조각을 가득 채웠다는 사건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12이라는 숫자는 우연이 아니다. 12명의 제자들에게 각자 하나씩 빵조각으로 가득 찬 바구니를 허락하심으로 계속 그들로 하여금 배고픈 자들을 돕는 사역을 하라는 뜻이다.

“너희들이 나를 섬기고 더 이상 줄 수 없을 때까지 주고, 주고 또 줄 때, 내가 너희를 돌보리라. 나는 항상 너희를 위하여 넘치도록 줄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 빵을 주기 위하여 생명을 쏟아 부어줄 때, 나는 너희 모든 것을 만족 시켜 주는 빵이 될 것이다. 네가 다른 사람에게 만족을 주면 줄수록 더욱 나는 너희의 만족이 될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네가 생명을 주면 줄수록 더욱 나는 너희에게 생명이 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신 뜻이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바 축복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내 것인양 생각하고 나 혼자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만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의도를 알지 못한 것이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리”(마태복음 10:8)는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할 말씀이다. 우리는 복음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모든 사람들에게 거저 복음을 줄 뿐 아니라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물질의 축복과 남이 가지지 못한 축복도 우리는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그리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흘러 넘치도록 계속 축복하실 것이다.

나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주님께 거저 받은 모든 축복을 나누어 주는데 너무 게을러 있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아프다.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 중 주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생각한다. 그들은 많이 배웠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했고, 영적으로도 축복을 많이 받았다. 특별히 그들이 젊은 날 받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말씀의 은혜를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을 누릴 것인가? 그리고 그와 같은 삶 가운데 그들에게는 얼마나 더 큰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질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에 젊은 날 가졌던 그 비전을 회복한다면 이 땅에 드리우고 있는 어두움은 금방 사라지고 말 것이다. 나는 젊은 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나누었던 우리가 이 은혜를 나누어 주는 열정을 회복하기를 매일 기도한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행 20 :35b)

## II. 물 위로 걸으신 예수님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신 기적을 통해서 요한 사도가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18 큰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19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십여 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20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21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요한은 여기서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록하지 않았다. 물론 예수님은 바람을 멈추고 거친 파도를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가 하고자 하시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나 요한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자 한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물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고, 자기 자신을 “나다”(I am)라고하신 것이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 여기셨다. 요한복음에서 “나는 이다”는 공식은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강조한 것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빵이다”.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오는데 이 의미도 자신이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신 것이다. 출애굽기에서 보면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I am that I am)”이라고 했던 것과 똑같다. 그들이 기꺼이 예수를 영접하자 그들은 가고자 하는 곳에 가게 되었다고 했다. 이로써 이야기는 끝이 난다.

앞의 사건에서도 예수님은 떡을 주시는 분으로서뿐만 아니라, 친히 자기 자신이 떡이 되신다

고 하셨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예수님은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물 위로 걸어가서 그들의 배 안에서 그들과 함께 하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하나님으신 그가 그들 가운데 거하셨을 때 그들의 문제는 해결된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해결해 주실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실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물 위로 걸으신 기적을 보여 주신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빵만 주는 자가 아니고 너희의 빵이 된다. 나는 단지 바람을 그치게 한 자가 아니고 내가 타고 있는 배에 들어가 항상 너와 함께한 자이다.” 이것이 요한이 이 기적을 기록한 의도이다.

우리는 이 기적들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자. 우리는 때로 무리와 제자들이 처했던 상황 가운데 있을 수가 있다. 물질 문제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고,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위험에 처할 때가 있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폭풍과 파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당신의 주위에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그 문제가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당신은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나는 항상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시급한 문제가 많이 있다. 그때마다 나는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기보다 그리스도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달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한다. 그리고 그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비결은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도록 돕는 것이다.

나는 어젯밤에 잠자리에 들려다가 한 성도에게 전화를 받았다. 그 전화를 받고 잠이 달아나 버렸다. 그 성도의 신앙 상태에 대한 염려 때문이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으로 돕기 위하여 기도하고 적절한 말씀을 카톡으로 보내 주었다. 그리고 나서 잠을 자려고 하니 잠이 오지 않는 것이다. 12시 14분이 되도록 잠을 잘 수가 없었다. 평소에는 10시 전에는 잠을 잔다. 나는 가끔 불면증에 시달릴 때가 있다. 어젯밤에도 불면증 증세를 느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묵상하며 주님의 임재를 깨달도록 기도했다.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잠을 잘 수가 있었다. 우리는 우리가 직면해 있는 폭풍우를 해결하기 위하여 참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깊이 마음에 모시는 노력을 해야 한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가 폭풍 같은 실연을 당할 때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요한계시록 3:20 볼지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당신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문제 자체만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예수님을 당신의 마음에 깊이 모시라. 주님이 당신과 함께하신다면 모든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리라 믿는다. 할렐루야 아멘.